

# 인도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요가 배우고

‘인도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요가도 배우고.’

세계 여러 나라 중 ‘인도’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다양한 문화를 통해 인도의 다채로운 색깔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30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016 인도 문화제’를 개최한다. 주한 인도 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제2회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해 공연, 영화제, 댄스, 요가강좌, 체험, 강연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프로그램은 1994년 그래미상을 수상한 비슈와 모한 바트가 참여하는 ‘HANDSHAKE 콘서트’(1~2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2)다.

‘Handshake 콘서트’는 음악과 문화가 결합된 콘서트로, 그래미상 및 인도의 문화 훈장 파드마쉬리 상 수상자인 비슈와 모한 바트가 이끄는 20명의 예술가 대표단이 인도 민속음악과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한국 공연단으로는 국악그룹 리움(Re: 音)이 출연해 양국의 음악을 연주한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는 재미와 작품성을 갖춘 발리



‘그래미상’ 비슈·모한 바트 참여  
‘HANDSHAKE 콘서트’ 열려  
인도 영화제·요가강좌·인문강연  
무료 관람...체험 프로도 진행

우드의 화제작을 감상할 수 있는 ‘인도 영화제’가 열린다. ‘세 열간이’에서 칸초를 맡았던 아미르 칸이 감독과 주연을 겸한 영화 ‘지상의 별처럼’을 필두로, 인도 여성하기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과 월드컵 우승기를 담은 ‘파이팅 인도!’, 인도 사회의 빈곤·교육 문제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2010년 칸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나는 칼람’ 등 총 4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역대 인도영화 흥행 1위 ‘세 열간이’의 감독 라지쿠마르 히라니의 ‘힘을 내요, 문나형님!’은 백수갑달인 문나가 자신의 이상형인 라디오 DJ 잔비를 만나며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다.

9월 2일과 3일(오후 4시 30분) 이틀간 볼리우드 댄스(발찬 밤보리아) 및 요가 강좌(디렌드리 티와리)가 진행되며, 3일과 4일(오전 10시~오후6시)에는 해나, 피규어 만들기, 전통의상 ‘사리’ 입어보기 등 다양한 인도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도문화 체험전’이 진행된다.

인문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30일에는 산스크리트 고전문학·고전철학 전문가인 이재숙 박사가 ‘신화의 창에서 인도 문화를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힌두 신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그밖에 ▲인도의 가족제도와 의례(31일·김경학 전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남인도의 도시, 사람, 그리고 삶(6일·박정석 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인도의 소리와 음악, 신과 인간을 잇는다(7일·윤혜진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를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모든 공연과 행사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영화·강좌는 사전 예매 또는 현장발권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ANDSHAKE 콘서트’ 모습.



‘힘을 내요, 문나형님!’

##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 ‘여름愛 노래’

29일 동네 카페 ‘싸목 싸목’

사)문화예술협회가 지역사회의 공연예술 저변확대와 건전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38회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 8월 공연이 열린다. 29일 오후 7시 30분 동네 카페 ‘싸목 싸목’ 다목적홀.

‘여름愛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프랑스 생모리 국립음악원에서 전문연주자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나리가 게리 샤커의 ‘Regrets and Resolutions’ 등을 연주한다. 또 바리톤 이형기가 우리에게 친숙한 ‘배사대 무조’, 소프라노 윤은주가 뮤지컬 엘리자벳의 ‘ch Gehor Nur Mi’, 여성중창단 로터스가 ‘사랑 없이 난 못살아요’를 노래한다.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는 두 달에 한번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페라 아리아·가곡...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

오라, 오라, 그리운 이여  
바위 위의 목동  
아리 아리랑  
학



9월 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라흐마니노프와 베르디와 슈베르트를 만나.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가 오는 9월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음악회에서 오페라 아리아, 독일 가곡, 한국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비발디의 ‘오라, 오라, 그리운 이여’, 오페라 ‘바이제트’ 중 ‘나는 멀리받은 아내라네’,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 라흐마니노프의 ‘노래하지 마오, 아름다운 이여’, ‘라일락’, 에이미 비치의 ‘세 개의 브라우닝 노래’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조두남 곡 ‘학’, 안정준 곡 ‘아리 아리랑’ 등 한국 가곡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오페라 아리아다.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중 ‘어떤 이상인가 보고 싶겠지’,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 중 ‘내가 태어난 아름다운 성으로 데려다 주세요’가 연주된다. 피아노 반주는 이상록씨가 맡았으며 클라리넷 연주자 송호섭씨가 협연한다. 호남예술제 등에서 여러차례 최고상을 받은 김씨는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베르디 국립음악원 등을 마쳤으며 이탈리아 로디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입상했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에서 수십차례 독창회를 열었으며 ‘리골레토’, ‘카르멘’, ‘나비부인’ 등 국내외에서 제작된 많은 오페라에 출연했다. ‘김선희 한국가곡’, ‘힐링가요’ CD를 출반하기도 했으며 광주교육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011-9623-57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황신애 ‘광주성악콩쿠르’ 1위

2016정음성음악축제  
2위 손지훈·3위 조찬희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뽑는 2016정음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1위(상금 1500만원)의 영예는 중앙대 출신의 소프라노 황신애(사진) 씨가 차지했다.

지난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콩쿠르 본선에서 황 씨는 한국가곡 ‘산유화’, ‘A Cycle of Life No.1 Prelude’(L.Ronald곡), ‘Casta Diva... Ah! bello a me ritorna from Opera Norma’(V.Bellini곡) 등을 불러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특적으로 이후 정음성 음악축제 협연 무대도 제공한다. 이어 2위 테너 손지훈(한국예술종합학교 재), 3위 베이스 조찬희(한양대 재), 정음성가곡상 테너 이종만(연세대 재), 우리가곡상 테너 손지훈(한국예술종합학교 재), 반주상 피아니스트 박수호(한국예술종합학교 재) 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황도상과 고향상은 각각 베이스 조바울(호남신학대 재)과 소프라노 최윤나(한국예술종합학교 재)씨가 수상했다.

이번 경연에는 총 102명이 참가해 두 차례 예선전을 거쳐 11명이 본선에 올랐고 윤현주(서울대학교 교수) 심사위원장과 유코 오타니(밀라노 도니제티시립음악원 교수) 등 10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신세계미술제 응모작 모집 내달 12일까지 기획안 제출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젊고 역량이 있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제18회 광주신세계미술제’를 연다.

응모 자격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신이거나 현재 활동하는 작가다. 별도 연령이나 자격 제한은 없다. 또 만 32세 이하 미술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신진작가상’을 선정한다.

주제는 자유롭다. 전시가능 작품이 포함된 기존 작품 이미지와 작품 설명, 수상작가 선정 초대전 내용과 전시기획안을 29일부터 9월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26일~11월8일 전시를 열고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명(상금 1000만원), 우수상 1명(300만원), 신진작가상 1명(200만원) 등에게는 개인 초대전을 제공한다. 또 부산 센텀시티점, 인천점, 대구점 등 타 지역 전시도 지원한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